

석 사 학 위 논 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차이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고 명 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신 자

2002년 2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차이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고 명 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10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신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2년 1월 일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 <초록>

#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차이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신 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고 명 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주시에 소재한 N초등학교의 5학년 5학급, 6학년 4학급 남·여 학생 33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성실히 응답한 319부의 질문지를 연구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이에 대한 자료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처리를 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간에는 차이가 있다. 즉, 수용-거부적 태도와 자율-통제적 태도에서 아동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수용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한다. 반면 비과잉-과잉적 태도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것보다 아동이 과잉기대, 즉 성취압력을 더 받고 있다.

이것을 성별로 보면, 여아는 수용-거부적 태도에서 어머니보다 더 수용적으로 지각하고, 남아인 경우는 자율-통제적 태도에서 어머니보다 더 자율적으로 지각한다. 비과잉-과잉적 태도의 경우는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잉기대를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어머니의 연령별로 보면 어머니의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자율성의 허용범위를 더 넓게 지각하고, 과잉기대를 더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

\* 본 논문은 2002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둘째,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할 때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지각이 불일치할 때는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지각이 불일치할 때 위축행동과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성별로 보면,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할 때 남아는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 모든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받으며, 여아인 경우는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할 때 여아의 위축행동과 강박행동에 영향을 준다. 또,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하면 여아의 경우에만 위축행동과 과잉행동, 공격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것을 어머니의 연령별로 보면,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할 때 40대 이상의 어머니를 가진 아동들이 과잉행동에 영향을 받고,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할 때는 40대 이상의 어머니를 가진 아동들이 위축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할 때 30대 이하의 어머니를 가진 아동들이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서 영향을 받는다.

셋째,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는 그 상관관계가 극히 낮아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는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차이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첫째,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자녀와의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돕는 부모교육의 강화 둘째,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투입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3
II. 이론적 배경	4
1. 양육태도의 개념 및 유형	4
2.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8
3.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13
III. 연구방법	17
1. 연구대상	17
2. 측정도구	18
3. 자료처리	20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22
1. 가설 1의 검증	22
2. 가설 2의 검증	26
3. 가설 3의 검증	37
V. 요약·결론 및 제언	39
1. 요약	39
2. 결론	43
3. 제언	45
참고문헌	46
Abstract	51
부    록	53

#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 .....	17
<표Ⅲ-2> 검사도구의 구성 및 관련문항 번호 .....	19
<표Ⅲ-3> 검사도구의 행동요인과 관련문항 번호 .....	20
<표Ⅳ-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	23
<표Ⅳ-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	24
<표Ⅳ-3> 어머니의 연령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	25
<표Ⅳ-4>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빈도 ..	27
<표Ⅳ-5>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빈도	27
<표Ⅳ-6>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	28
<표Ⅳ-7>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	29
<표Ⅳ-8>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	30
<표Ⅳ-9> 아동의 성별에 따른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	31
<표Ⅳ-10>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	32
<표Ⅳ-11> 아동의 성별로 본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	33
<표Ⅳ-12>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 .....	34
<표Ⅳ-13>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	35
<표Ⅳ-1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36
<표Ⅳ-15>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차이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 .....	37

## 그림 목 차

[그림1] : 아동 양육태도에 관한 가설적 모형 ..... 6

## 부 록 목 차

<부록 1> 양육태도 검사지(어머니용). ..... 54  
<부록 2> 양육태도 검사지(아동용) ..... 57  
<부록 3> 정서적 부적응 행동 검사지(아동용) ..... 60



# I. 서론

이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문제와 가설을 기술하고자 한다.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가치관의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변화에 민감한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사회적·정서적 부적응아들에 대한 문제와 무관심이 산재해 있다. 정서적 부적응아는 생활 장면에서 성격 부조화나 성격장애 등의 부적응 행동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교사와 급우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적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학교나 사회, 가정에서 정상적인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교사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김형호(1978)는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동들의 부적응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 유형면에서 “사회적 고립 현상”을 보이는 아동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아동들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 가정의 무관심과 결손가정에 있고, 옳지 못한 양육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Hallahan과 Kaffman(1978)도 정서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들고 있



다(김영숙, 1988. 재인용).

특히 유아기나 아동초기의 어린이들은 주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Jersild, 1960).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및 양육방법이 아동의 행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포함한 가정의 제반 환경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아동의 행동에 적응적인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 부적응쪽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 결정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어머니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벌을 주지만 자녀는 어머니가 자기를 미워해서 벌을 준다고 지각한다면 어머니의 의도적인 행동은 자녀에게 다르게 지각되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부모가 자녀를 비교적 잘 대해주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한 점은 이에 대한 견해를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실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와 꼭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분야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김영숙, 1988 ; 신금주, 1994 ; 박영미, 1995 ; 박수정, 1998 ; 정매자, 1999)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이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어머니와 아동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 차이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 차이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는 아동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보다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모색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지각한 양육태도간에는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양육태도 지각의 일치도에 따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에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에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양육태도 지각의 일치도에 따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양육태도 지각의 일치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양육태도 지각의 일치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양육태도의 개념 및 유형,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양육태도의 개념 및 유형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환경으로는 가정, 사회, 문화가 있다. 이 가운데 가정은 사회적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환경이며 특히 자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자녀의 지적, 정서적 특성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과 사고를 양육태도(rearing attitude)라 한다(엄경순, 1992).

Fishbein(1975)은 양육태도를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형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하였으며, 임선화(1987)는 부모나 또는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이라고 하였다.

즉,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가르칠 때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을 말하며, 이러한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지적, 정서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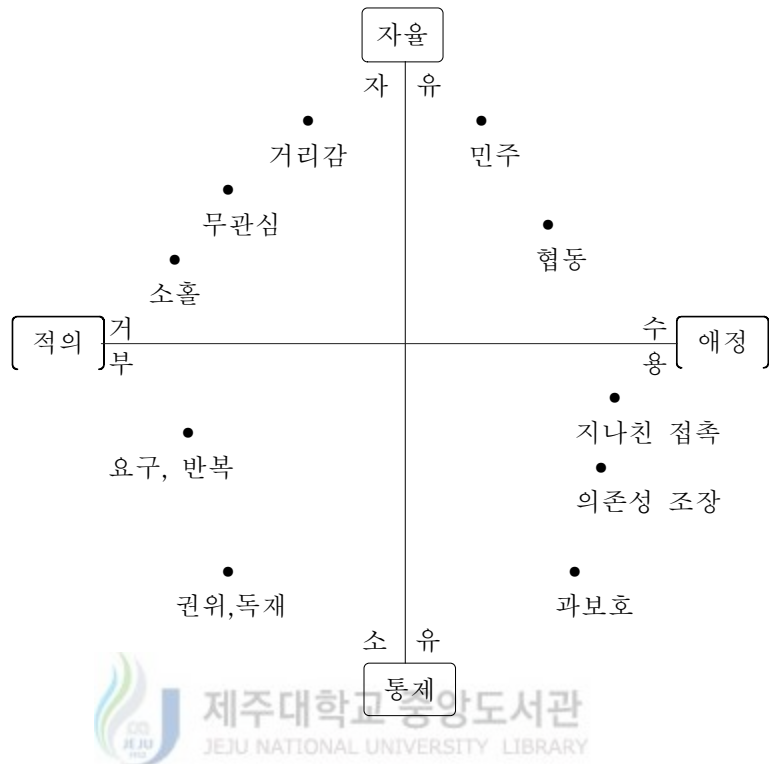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부모와 자녀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Freud학파에 의해서 초기경험의 중요성이 강

조되면서부터이다.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은 학자들과 관심 있는 부모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의 양육태도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유형화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Symonds(1949)이다. 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2개의 차원으로 분류했으며 이러한 2개의 차원을 다시 지배에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복종에는 복종형과 익애형, 수용에는 간섭형과 불안형, 거부에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의 형태 등 각각 2개의 차원으로 세분하여 분류하였다. 그에 의하면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태도는 중용을 택하는 것, 거부적, 지배적, 과보호적, 복종형도 아닌 중간을 취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하여 임상사례에 의존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설명되었고, 건전한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정상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부모양육태도를 설명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있다(이원영, 1983. 재인용).

이에 반하여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하여 Symonds(1949)와는 다른 가설적 모형을 제시했으며 그의 모형은 자녀 양육에 관련된 각종 변인들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그 변인들 중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인과 서로 대립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각 변인의 위치를 원형 상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김영숙, 1988. 재인용).



[그림1] : 아동 양육태도에 관한 가설적 모형(출처 : Schaefer, 1959)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가설적 모형은 양육태도를 두 개의 축, 즉 애정-적의의 축과 자율-통제의 축으로 대비한 것이 특징이다. 자율-애정 사이의 양육태도와 통제-적의 사이의 양육태도는 각각 민주형과 독재형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자율-적의 사이의 양육태도와 통제-애정 사이의 양육태도는 각각 방임형과 익애형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Baumrind(1971)는 통제, 성숙에의 요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명확성 및 부모의 양육성의 4차원에 기초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적 통제, 엄격한 태도, 허용적 태도의 3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오기선(1968)의 연구

가 비교적 초기에 발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Symonds(1949)의 이론에 입각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 지배적, 보호적, 복종적, 모순 불일치의 태도 등 5개 차원으로 나누었고 정원식(1974)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을 수용-거부, 자율-통제,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였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유형을 애정, 자율, 성취, 합리성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여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극화시켰다. 이는 Schaefer가 제시한 2개의 양육차원 외에도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성취-비성취와 합리-비합리의 2개 차원을 더 유형화함으로써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태도 차원을 거의 망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양육태도에 대해 분류하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도 Schaefer(1959)의 두 개의 축, 즉 애정-적대, 자율-통제 차원에 대한 적절성은 Becker(1964), Mussen(1969), Kagen(1969) Hurlock(1978)의 연구에서 지지되었으며 이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양육태도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1)애정적-자율적 태도

양육태도로서 가장 권고할 만하며 이러한 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능동적, 외향적이고 독립적이며 사회적응을 자신 있게 하며 외교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적대감이 없다

#### (2)애정적-통제적 태도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태도로 애정적이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가정에서 자란 유아보다 더 의존적이고 사교성, 창의성이 적은 편이며 상상적인 적대감을 품는다고 한다.

#### (3)적의적-자율적 태도

자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록 하는 부모의 태도로 이러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어린이는 공격적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4)적의적-통제적 태도

자녀를 따뜻하게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을 체벌 또는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태도로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자아에 대한 분노와 내면화된 갈등, 고통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

한편, 김기정(1984)의 부모 양육태도 유형은 위의 네 가지 유형과 일맥상통하면서도 비과잉-과잉이라고 하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 김기정(1984)은 부모 양육태도를 자아이론가들에 의하여 주장된 자아개념의 고양 또는 손상과 관련된 심리적 관계의 조건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입시위주의 지식만을 강조하는 우리 나라의 교육적 현실 때문에 자식들에게 항상 좋은 성적만을 강요하는 부모들의 양육태도를 고려한 김기정(1984)의 검사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각각의 하위 요인별 개념은 「측정도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 2.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정서적 부적응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그 행동특성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의를 여러 관점에서 내릴 수 있다.

먼저 생물리학적 관점에서는 이상행동을 신체적인 병과 똑같이 생각한다. 즉 신체적인 병이 원인이 되어 이상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Freud의 정신분석이론에 근거하여 정서적 부적응을 id, ego, superego를 포함하는 개개인의 정신구조가 갈등을 일

오키는 증상으로 보았다. 즉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동들은 이 세 가지가 비교적 조화롭게 작용하여 개인의 필요한 욕구를 만족시키게 되는데 비해서, 이 세 가지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 그 아동은 정서적으로 부적응 행동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또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정서적 부적응이란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된 것이며, 이러한 부적응 행동은 다른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정적 강화 또는 벌 등의 부적 강화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한다.

사회적·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부적응 행동이란 부적절한 사회적 영향이 아동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서 일어나는 이탈된 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이 있다. 특히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아동들의 정서적인 행복은 아동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에 기초하는 것으로 아동-가정-학교-이웃-지역사회로 구성된 작은 생태학적 단위가 원활하게 움직일 때 정서적으로 행복하다고 하였다.

심리 교육적 관점에서의 정서적 부적응은 행동주의적 관점과 정신분석학적 관점의 절충적인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아동이 내적 잠재력을 가졌으며 이 잠재력은 초기의 경험과 연결되어 아동의 자아개념, 포부, 현실이나 긴장을 다루는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즉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학교, 가정, 사회에서 아동들에게 부과하는 요구에 아동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 내적 불안이 야기되고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며 불안, 좌절 등이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교사나 친구의 태도가 거부적이면 더욱 심하게 된다(김인자, 1980).

이와 같은 여러 관점에서 본 견해를 종합하여 내린 정의로는 Bower(1969)의 정의를 들 수 있다. Bower(1969)는 다음의 특성을 어느 기간 동안 하나나 둘 이상 나타내는 행동을 정서 부적응이라고 하였다.

①지적 요인, 감각적 요인과 건강요인은 정상인데도 학습장애가 있다.



- ②친구나 교사와의 만족스런 인간관계를 이루거나 지속할 수 없다.
- ③정상적인 상황인데도 행동이나 감정이 부적절하다.
- ④아동자신이 불행이나 억압감을 느끼며 남들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준다.
- ⑤신체장애, 고통이나 두려움을 개인적인 문제나 학교문제에다 관련 시키려고 한다.

즉 Bower(1969)는 정서 부적응을 환경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키어 주위사람들과 원만하게 행복한 대인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Kirt(1972)는 정서적 부적응아를 연령에 적절한 행동에서 벗어나 (1)아동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2)남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으로 보았고, Kaffman(1977)은 정서적 부적응아를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그들 자신에 대한 기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아동이라 정의하였다.

정원식(1984)은 인간의 행동은 그가 가진 욕구에서 비롯되는 바 이 욕구 추구를 위한 활동이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욕구의 충족이 저지당했을 경우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융통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상반응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을 적응장애 또는 부적응 행동이라 하였다. 여리성(1993)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심리적으로 갈등상태에 놓이게 되어 주어진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며 일탈된 행동을 자주 나타내는 아동을 정서적 부적응아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정서적 부적응아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로 인하여 가정, 학교, 사회에 적절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갈등, 불안, 좌절, 실패감 등으로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환경에 적합하게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여 이상한 행동을 유발하는 아동이라 할 수 있다.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그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분류하는 기준과 용어에는 학자마다 약간씩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Dunn(1969)은 정서부적응아를 정서 불안정아와 사회 불안정아로 분류하고 정서불안정아(emotionally disturbed child)는 정서불안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없으며 친구에게 난폭하게 행하고 거짓말과 화를 잘 내며 어른에게 거부적이고 불복종하는 공격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자극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하고 위축된 태도로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침묵을 나타내거나 열등감을 나타내는 등의 퇴행적 행동을 보이며 심리적 억압으로 자기에게 기대되는 일들을 할 수 없는 아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부적응아(socially maladjusted child)는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을 무시하고 그 대신 친구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도둑질, 싸움 등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만성적으로 하는 아동이라고 정의하였다(문희옥, 1987. 재인용).

Kirt(1972)는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공격적 행동, 퇴행적 행동, 신체적 징후, 위축되거나 고립된 행동, 두려움의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Reinert(1976)는 많은 교수들의 경험과 학교에서의 관찰을 통해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1)폭발하는 행동(때리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 (2)퇴행하는 행동(침묵, 손가락 빨기, 제한된 행동)
- (3)방어적인 행동(거짓말, 숙제 안하기)
- (4)미성숙한 행동(자폐증적인 행동, 현실성 결여)

이보다 더욱 발전된 분류체계로는 Quay(1972)와 그의 동료들이 연구한 것이다. 이는 교사와 부모에 의한 행동평정, 아동의 생육사 특성, 질문지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근거로 행동장애, 성격장애, 미성숙, 비행 등 4가지 행동 특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최근 Achenbach(1978)는 아동의 행동을 경험적인 배경에 두고 문항

을 작성하여 요인분석에 의해서 남녀별, 연령별로 분류하였다. 분류의 내용은 성별, 연령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분열적행동(schizoid), 우울행동(depressed), 언어부족행동(uncommunicative), 강박행동(obseeive-compulsive), 사회적 위축행동(social withdrafwal), 과잉행동(hyperactive), 공격행동(aggressive), 비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적응 행동을 어떤 기준 하에서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어떻게 분류하느냐의 문제는 학설이나 학자들 사이에 견해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행동 특성이 따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여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오승연(1993)은 학급에서 일어나는 부적응 행동의 특성으로 과잉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 방어행동으로 분류하였다.

(1) 과잉행동 : 어떤 상황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행동성을 보이거나 불필요하게 하는 행동이다. 과잉행동은 소란스러운 행동, 주의 산만한 행동,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세분된다.

(2) 공격행동 : 자기 자신이나 상대에 대하여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가하거나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다. 공격성은 상대에 대하여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공격을 가하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며, 싸움을 잘 하거나 반대를 잘 하는 사람, 욕설을 잘 하는 사람은 공격성이 강한 사람으로 인정된다.

(3) 위축행동 : 위축행동이란 주변 환경과의 접촉에서 움츠러들고 주변사람(교사, 급우)과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없는 행동을 말한다. 환경의 변화에 의한 일시적인 위축은 제외된다. Reinert(1976)는 위축행동을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억제되고 제한된 행동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위축행동은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관심있게

보지 않으면 무시되고 방관됨으로써 그 행동이 유지되고 심하게 될 수 있다(김미숙, 1982).

(4) 방어적 행동 : 방어적 행동이란 욕구 불만일 때 자기를 감싸고 지키려는 행동으로 불리한 것은 변명하려고 하는 경향이다. 방어행동은 보상적 행동, 합리화 및 전가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으로 구분된다.(김보경 외, 1986)

이와 비슷한 연구로는 박영미(1995)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으로 분류한 것이 있다. 이것은 오승연(1993)이 분류한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의 세 가지 행동과는 동일하나 퇴행행동과 강박행동이 추가된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퇴행적 행동의 특성은 자신이 어리고 몸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잘 울며, 어리광을 잘 부리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어린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을 말한다.

그리고, 강박적 행동의 특성이란 지나치게 민감하고, 공상을 잘하고, 쉽게 놀라며, 이상한 공포심을 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며, 지나치게 수줍어하고 항상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박영미(1995)가 분류한 다섯 가지 정서적 부적응 행동들은 현직 교사인 연구자가 학급에서 주로 관찰되는 부적응 행동들을 잘 분류하였고,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 3.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가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장으로 모든 자녀들은 가족과의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성장하고 발달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형성이라고 할 때 가정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교육

환경이 되고 이러한 가정환경 중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Jenkins(1946)의 범죄소년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거부적 태도는 반사회적 범죄행동과 범죄적 성격을 낳게 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Symonds(1949)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즉 부모가 자녀를 다루는 거부적 태도와 방법이 불량화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수용되고 있는 자녀를 비교하여 전자는 후자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려 깊으며 친절하고 장래에 관해서도 자신을 갖고 열심인데 반해 후자는 불안정하고 비행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aldwin(1964)의 연구에서도 거부된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안정하며 인간에 대한 신념을 상실하게 되고 비합리적 파괴행동을 일삼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

Mussen(1974)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모들이 양육태도가 온정적이며 허용적일 때 자녀는 활동적이면서 다정하고 창의성이 높고 독립적이며 사회생활 적응에 단순한 태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엄격할 경우 자녀는 유순한 태도를 가지며 규칙을 준수하고 순종적이며 차분하고 단정하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이고 허용적일 경우 자녀는 공격적이고 조절되지 못한 부적응 행동이 극대화된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를 중심으로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선실(1968)은 허용적인 태도로 양육하려는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애정을 주며 긍정적 태도로 대하며 그들의 자녀는 타인과의 관계에 서로 원만한 성격을 갖는 반면 자녀에게 거부적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며 부정적 태도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그들의 자녀는 사회에 부적응 상태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윤희상(1974)의 연구 결과에서도 어머니가 지배적일 때 여아의 지배성, 충동성과 관계가 있

으며 보호적일 때 여아의 안정성, 사려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지배적인 태도는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희(1979)의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대적 관계는 부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애정 차원에서는 남아가 아버지에게 대해 그리고 여아가 어머니에 대해 애정적으로 높게 지각할수록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근후 등(1980)은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서 모성의 과잉보호(maternal overprotection)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익애형 과보호는 부모가 자식으로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무언이고 들어주고 행동적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항상 걱정하고 자식이 하자는 데로 했을 때, 이런 환경의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 억제를 못하고 과잉공격형이 되어서 행동 장애로 발전할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지배형 과보호는 부모가 아이들을 과잉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고 명령하여 그 아이들은 복종적이고 의존적이며 피동적이 되고 나중에 자신이 없고 위축된 아이들로 발전하고 그 안에는 억압된 분노 및 증오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수동 공격적으로 표현되는 수가 많다고 했다.

정명교(1983)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 거부형으로 지각할수록 MMPI 전 척도에서 성격경향이 높아지고 기대형으로 지각할수록 정신병질, 편집증, 정신쇠약증, 정신분열증, 경조증의 성격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수연(1985)은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남·여 모두 아버지를 자율지향적·합리지향적이라고 지각하는 반면에 어머니를 애정지향적·성취지향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김제은(1989)은 벽지 초등학교 아동의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딸이 지각하는 부와 모의 차이 검증 결과 딸의 경우 부가 모보다 딸에 대해 더 지배적이며 또한 어머니가 딸보다도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더

지배적, 복종적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들, 딸의 지각 차에서는 아버지의 경우 아들보다 지배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딸이 아들보다 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복종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들이 딸보다 어머니를 복종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아들보다도 딸에 대해 더 복종적이고 모순과 불일치를 보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제와는 달리 여러 가지로 지각될 수 있다. 즉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아동 자신의 여러 요인 및 복잡한 심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들 부모의 실제태도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Madinnus(1966)는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와 이것을 받아들이는 아동의 지각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청년들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를 그들의 자아수용과 관련지어 지각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자아수용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 측면에서 보려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다른 연구에서 범죄소년 집단과 일반소년 집단 사이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범죄소년 집단은 아버지에 대해 특히 거부와 무시의 차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 결과는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동의 지각차이가 클수록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동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의 불일치가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가져올 수 있는 지를 밝혀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녀양육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 Ⅲ. 연구방법

여기에서는 본 연구 실시에 따른 연구대상, 측정도구, 자료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내 N초등학교의 5학년 5학급, 6학년 4학급 남·여 학생 33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을 5,6학년으로 정한 것은 본 검사 문항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중 자료회수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이나 어머니와 아동 중 한 사람이라도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319부만이 최종 통계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대상

구분	변인		사례수(%)
어머니	연령	30대 이하	99(31.0)
		40대 이상	220(69.0)
아동	성별	남	173(54.2)
		여	146(45.8)
	학년별	5학년	181(56.7)
		6학년	138(43.3)
계			319(100.0)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두 가지, 즉 양육태도 검사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검사이다.

### 1) 양육태도 검사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기정(1984)이 제작한 양육태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은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의 3영역으로 하였고, 각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거부 : 수용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생각이나 감정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며 격려와 칭찬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거부는 애정이 복잡하고 무관심하여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비난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자율-통제 : 자율은 자녀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며 부모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통제는 지시와 간섭, 금지와 통제가 많으며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부모의 가치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비과잉-과잉 : 비과잉은 항상 성공하고 좋은 성적을 성취하기만을 기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과잉은 항상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좋은 성적만을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사지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지각하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제작된 것을 연구자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 양육태도를 묻는데 있어서는 같은 내용의 서술만 바꾸어 어머

니용와 자녀용으로 구분하였다. 그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들에 대한 문항 : “우리 어머니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어머니들에 대한 문항 : “나는 우리 아이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있다.”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의 각 문항수는 11문항씩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지의 평가방법은 ‘항상 그렇다’(4), ‘자주 그렇다’(3), ‘가끔 그렇다’(2), ‘전혀 아니다’(1)의 4단계로 되어있다. 한편 채점방식에 있어서 수용-거부의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자율-통제의 영역도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을 허용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비과잉-과잉은 점수가 높을수록 과잉기대를 나타낸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검사의 구성내용과 관련문항의 번호를 나타내면 <표Ⅲ-2>와 같다

<표Ⅲ-2> 검사도구의 구성 및 관련문항 번호

태도영역	성장촉진적	성장억제적	문항번호	문항수	α계수
수용-거부	수용	거부	1,4,7,10,13,16,19,22,25,28,31	11	.77
자율-통제	자율	통제	2,5,6,8,11,14,17,23,26,29,32	11	.55
비과잉-과잉	비과잉	과잉	3,9,12,15,18,20,21,24,27,30,33	11	.83

## 2)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검사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판별도구로서는 Achenbach(1978)가 제작한 아동 행동에 관한 질문지(child behavior checklist)와 Quay(1972)가 제작한 정서적 부적응용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박영미(1995)가 제작한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5가지 요인, 즉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으로 각 요인별 10문항씩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지의 평가 방법은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하게 하여 각각 2점,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각 요인마다 최저 10점에서 최고 20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검사도구의 구성내용과 관련문항을 정리하면 <Ⅲ-3>과 같다.



<표Ⅲ-3> 검사도구의 행동요인과 관련문항 번호

정서적 부적응 행동 요인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
문항번호	1-10	11-20	21-30	31-40	41-50
$\alpha$ 계수	.60	.64	.61	.54	.65

##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방법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및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하였다.

3) 유의수준은  $p < .01$ ,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육태도 검사를 통해 얻어진 4개 영역 33개 문항을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연령별로 알아보았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차이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조사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에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에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를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연령별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IV-1>,<표IV-2>,<표IV-3>과 같다.

#### 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표IV-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구 분		N	$\bar{X}$	SD	t
수용-거부	아동	300	29.91	5.05	2.175 *
	어머니	300	29.26	4.22	
자율-통제	아동	300	21.36	4.40	3.012 **
	어머니	300	20.48	3.77	
비과잉-과잉	아동	303	24.25	5.82	7.411 **
	어머니	303	21.86	4.86	

(\* :  $p < .05$ , \*\* :  $p < .01$ )

<표 IV-1>를 보면,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아동( $\bar{X}=29.91$ )의 지각 점수가 어머니( $\bar{X}=29.26$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즉, 아동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더 수용적으로 여기고 있다.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도 아동( $\bar{X}=21.36$ )은 어머니( $\bar{X}=20.48$ )의 지각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1$ ). 즉, 아동은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자율성보다 그 허용 범위를 더 큰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비과잉-과잉적 태도의 경우 아동( $\bar{X}=24.25$ )의 지각 점수가 어머니( $\bar{X}=21.86$ )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1$ ). 즉, 아동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과잉기대를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1>에 나타난 결과는 점차 핵가족화되고 어머니의 취업이나 개인주의 등을 증시하는 사회변화로 어머니와 아동의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 여겨지며 또한 자녀수의 감소로 인한 어머니의 과잉보호도 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는 자율성의 경우에만 자녀들이 지각하는 평균이 어머니들의 평균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정황순(1996)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표IV-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구 분	아동			어머니			t	
	N	$\bar{X}$	SD	N	$\bar{X}$	SD		
수용-거부	남아	160	29.56	5.14	160	29.38	4.19	0.425
	여아	140	30.30	4.93	140	29.11	4.26	2.874 **
자율-통제	남아	163	21.94	4.36	163	20.73	3.97	2.826 **
	여아	137	20.67	4.36	137	20.20	3.50	1.253
비과잉-과잉	남아	166	25.01	5.60	166	22.52	4.87	5.492 **
	여아	137	23.33	5.96	137	21.06	4.74	5.492 **

(\*\* :  $p < .01$ )

<표IV-2 >를 보면,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여아( $\bar{X}=30.30$ )의 지각점수는 어머니( $\bar{X}=29.11$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p < .01$ ). 즉, 여아들의 경우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더 수용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 남아( $\bar{X}=21.94$ )의 지각점수가 어머니( $\bar{X}=20.73$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p < .01$ ). 즉, 남아들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들에게 허용되는 자율의 범위를 더 넓게 지

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비과잉-과잉적 태도의 경우 남아( $\bar{X}=25.01$ )의 지각점수가 어머니( $\bar{X}=22.52$ 점)의 지각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p<.01$ ). 여아( $\bar{X}=23.33$ )의 경우도 어머니( $\bar{X}=21.06$ )의 지각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p<.01$ ). 즉, 남·여 공히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과잉 기대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 가정에 1-2명의 자녀만을 두고 있는 현 시대의 가족구조를 고려해 보면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표IV-2 >에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가 남아와 여아 모두 자율성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여아들의 경우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잉적으로 지각한다는 정황순(1996)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 3) 어머니의 연령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표IV-3> 어머니의 연령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구 분		아동			어머니			t
		N	$\bar{X}$	SD	N	$\bar{X}$	SD	
수용-거부	30대 이하	91	30.16	4.99	91	29.42	4.02	1.329
	40대 이상	209	29.79	5.08	209	29.19	4.31	1.720
자율-통제	30대 이하	94	21.48	4.54	94	20.48	4.09	1.992 *
	40대 이상	206	21.31	4.34	206	20.49	3.62	2.294 *
비과잉-과잉	30대 이하	94	23.62	6.04	94	21.70	5.10	3.425 **
	40대 이상	209	24.54	5.70	209	21.93	4.76	6.606 **

(\* :  $p<.05$ , \*\* :  $p<.01$ )



<표IV-3>를 보면,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 30대 이하는 아동( $\bar{X}=21.48$ )의 지각점수가 어머니( $\bar{X}=20.48$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p<.05$ ). 40대 이상의 경우도 아동( $\bar{X}=21.31$ )은 어머니( $\bar{X}=20.49$ )의 지각점수보다 통계적으로 높았다( $p<.05$ ). 즉, 어머니의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율의 범위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

비과잉-과잉적 태도의 경우 30대 이하는 아동( $\bar{X}=23.62$ )의 지각점수가 어머니( $\bar{X}=21.7$ )보다 통계적으로 높았다( $p<.01$ ). 40대 이상의 경우도 아동( $\bar{X}=21.31$ )은 어머니( $\bar{X}=20.49$ )의 지각점수보다 통계적으로 높았다( $p<.01$ ). 이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에 상관없이 자녀들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과잉기대, 즉 성취압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 2. 가설 2의 검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설 2. 양육태도 지각의 일치도에 따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양육태도 지각의 일치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양육태도 지각의 일치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빈도

<가설 2>의 검증을 위해서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간의 지각 차이 점수를 구하고 차이점수가 0점-2점까지를 일치집단으로, 3점-4점을 중간집단으로, 5점 이상의 점수차이를 불일치 집단으로 구분하여

중간 집단을 제외한 일치집단과 불일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는 차이점수 분포 빈도와 백분율을 참고로 하여 어느 한 집단에 점수 값이 상대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슷한 분포를 바탕으로 일치집단, 중간 집단, 불일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아동의 성별과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빈도를 살펴보면 <표IV-4>, <표IV-5>과 같다.

<표IV-4>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빈도

구 분		남아	여아	전체
수용-거부	일치	61	58	119
	불일치	59	51	110
	계	120	109	229
자율-통제	일치	63	63	126
	불일치	61	48	109
	계	124	111	235
비과잉-과잉	일치	56	55	111
	불일치	75	43	118
	계	131	98	229

<표IV-5>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빈도

구 분		30대 이하	40대 이상	전체
수용-거부	일치	34	85	119
	불일치	39	71	110
	계	73	156	229
자율-통제	일치	42	84	126
	불일치	30	79	109
	계	72	163	235
비과잉-과잉	일치	36	75	111
	불일치	35	83	118
	계	71	158	229

## 2) 양육태도 지각의 일치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양육태도 지각의 일치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려는 것이 가설 2의 의도였으며, 이를 구명하는 방법으로 먼저 양육 태도의 각 하위 요인별로 지각의 일치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의 각 하위 요인별 지각의 일치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 (1) 양육태도 지각의 일치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표IV-6>는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 <표IV-6>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 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구 분	일치			불일치			t
	N	$\bar{X}$	SD	N	$\bar{X}$	SD	
위축행동	118	2.00	2.05	108	2.54	2.27	-1.840
과잉행동	119	3.47	2.26	110	4.40	2.48	-2.964 **
공격행동	119	2.05	1.97	110	2.51	2.20	-1.666
퇴행행동	119	2.75	1.98	107	3.23	1.99	-1.832
강박행동	119	4.13	2.14	108	4.68	2.47	-1.770

(\*\* : p<.01)

<표IV-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는 과잉행동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p < .01$ ). 즉, 불일치 집단( $\bar{X}=4.40$ )이 일치 집단( $\bar{X}=3.47$ )보다 과잉행동을 많이 보인다 그러나 위축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차이가 아동의 과잉행동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표IV-7>는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IV-7>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구 분	일치			불일치			t
	N	$\bar{X}$	SD	N	$\bar{X}$	SD	
위축행동	124	1.91	1.97	109	2.58	2.40	-2.299 *
과잉행동	126	3.66	2.42	109	4.09	2.47	-1.356
공격행동	126	2.13	2.06	109	2.597	2.19	-1.666
퇴행행동	126	2.87	1.98	108	3.06	1.99	-.732
강박행동	126	4.16	2.36	108	4.70	2.42	-1.737

(\* :  $p < .05$ )

<표IV-7>에서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차이는 아동의 위축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불일치 집단( $\bar{X}=2.58$ )이 일치 집단( $\bar{X}=1.91$ )보다 위축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다( $p < .05$ ). 즉, 어머니와 아동이 서로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지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아동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혼날까봐 겁부터 내고 쉽게 당황한다고 할 수 있다.

<표IV-8>은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IV-8>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구 분	일치			불일치			t
	N	$\bar{X}$	SD	N	$\bar{X}$	SD	
위축행동	109	1.88	2.07	118	2.46	2.30	-1.981 *
과잉행동	111	3.57	2.08	118	4.24	2.40	-2.254 *
공격행동	111	2.09	1.87	118	2.56	2.11	-1.778
퇴행행동	111	2.81	1.83	117	3.05	2.11	-.921
강박행동	110	4.07	2.17	118	4.52	2.48	-1.434

(\* : p<.05)

<표IV-8>에서 제시된 것처럼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차이는 위축행동과 과잉행동에서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위축행동에서 불일치집단( $\bar{X}$ =2.46)이 일치집단( $\bar{X}$ =1.88)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잉행동에서도 불일치집단( $\bar{X}$ =4.24)이 일치집단( $\bar{X}$ =3.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하면 아동은 위축행동과 과잉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양육태도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표IV-9>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IV-9> 아동의 성별에 따른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구 분		일치			불일치			t
		N	$\bar{X}$	SD	N	$\bar{X}$	SD	
위축행동	남아	60	1.65	1.68	58	2.79	2.54	-2.876 **
	여아	58	2.38	2.33	50	2.24	1.89	.343
과잉행동	남아	61	3.38	2.29	59	4.86	2.45	-3.557 **
	여아	58	3.62	2.25	51	3.86	2.44	-.539
공격행동	남아	61	1.70	1.81	59	2.68	2.34	-2.544 *
	여아	58	2.41	2.07	51	2.31	2.03	.254
퇴행행동	남아	61	2.39	1.95	57	3.14	2.03	-2.037 *
	여아	58	3.12	1.97	50	3.34	1.98	-.577
강박행동	남아	61	3.62	1.87	58	4.67	2.49	-2.590 *
	여아	58	4.67	2.27	50	4.68	2.48	-.017

(\* : p<.05, \*\* : p<.01)

<표IV-9>에서 제시된 것처럼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차이는 남아인 경우 위축행동(p<.01), 과잉행동(p<.01), 공격행동(p<.05), 퇴행행동(p<.05), 강박행동(p<.05)의 모든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아는 위축행동(불일치 집단:  $\bar{X}$ =2.79 일치 집단:  $\bar{X}$ =1.65), 과잉행동(불일치 집단:  $\bar{X}$ =4.86 일치 집단:  $\bar{X}$ =3.33), 공격행동(불일치 집단:  $\bar{X}$ =2.68 일치 집단:  $\bar{X}$ =1.70), 퇴행행동(불일치 집단:  $\bar{X}$ =3.14 일치 집단:  $\bar{X}$ =2.39), 강박행동(불일치 집단:  $\bar{X}$ =4.67 일치 집단:  $\bar{X}$ =3.62) 의 모든 행동에서 불일치 집단이 일치집단보다 부적응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IV-10>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IV-10>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의 차이

구 분		일치			불일치			t
		N	$\bar{X}$	SD	N	$\bar{X}$	SD	
위축 행동	남아	62	2.09	2.18	61	2.26	2.14	-.425
	여아	62	1.73	1.73	48	2.98	2.66	-2.832 **
과잉 행동	남아	63	3.87	2.43	61	4.23	2.40	-.820
	여아	63	3.44	2.41	48	3.92	2.56	-.996
공격 행동	남아	63	2.17	2.14	61	2.57	2.10	-1.047
	여아	63	2.09	1.98	48	2.63	2.31	-1.298
퇴행 행동	남아	63	2.90	1.99	61	2.84	1.89	.197
	여아	63	2.83	1.97	47	3.34	2.09	-1.318
강박 행동	남아	63	4.37	2.43	61	4.31	2.23	.128
	여아	63	3.95	2.30	47	5.21	2.59	-2.693 **

(\*\* : p<.01)

<표IV-10>에서 제시된 것처럼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는 여아의 경우 위축행동(p<.01)과 강박행동(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여아의 경우는 위축행동에서 불일치 집단( $\bar{X}$ =2.98)이 일치 집단( $\bar{X}$ =1.73)보다 점수가 높고, 강박행동에서도 불일치 집단( $\bar{X}$ =5.21)이 일치 집단( $\bar{X}$ =3.95)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아인 경우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

의 지각의 차이가 다르면 위축행동과 강박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IV-11>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IV-11> 아동의 성별로 본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구 분	일치			불일치			t	
	N	$\bar{X}$	SD	N	$\bar{X}$	SD		
위축행동	남아	55	1.89	1.94	75	2.19	2.22	-0.792
	여아	54	1.87	2.21	43	2.93	2.39	-2.263 *
과잉행동	남아	56	3.95	2.07	75	4.24	2.33	-0.748
	여아	55	3.18	2.04	43	4.23	2.54	-2.276 *
공격행동	남아	56	2.16	1.98	75	2.40	2.09	-0.662
	여아	55	2.02	1.77	43	2.84	2.13	-2.081 *
퇴행행동	남아	56	2.63	1.53	74	2.79	2.11	-0.539
	여아	55	3.00	2.09	43	3.49	2.05	-1.157
강박행동	남아	55	3.87	2.06	75	4.20	2.42	-0.811
	여아	55	4.27	2.29	43	5.07	2.51	-1.639

(\* : p<.05)

<표IV-11>에서 제시된 것처럼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차이는 여아인 경우 위축행동(p<.05), 과잉행동(p<.05), 공격행동(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여아는 위축행동에서 불일치 집단( $\bar{X}$ =2.39)이 일치 집단( $\bar{X}$ =2.21)보다 점수가 높고, 과잉행동에서도 불일치 집단( $\bar{X}$ =4.23)이 일치 집단( $\bar{X}$ =3.18)보다 점수가 높으며, 공격행동에서도 불일치 집단( $\bar{X}$ =2.84)이 일치 집단( $\bar{X}$ =2.02)보



다 점수가 높았다. 이것은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지각이 불일치하면 여아의 경우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을 보임을 의미한다.

(3)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표IV-12>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IV-12>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

구 분		일치			불일치			t
		N	$\bar{X}$	SD	N	$\bar{X}$	SD	
위축 행동	30대이하	34	1.94	1.87	39	2.54	2.49	-1.144
	40대이상	84	2.04	2.13	69	2.54	2.15	-1.441
과잉 행동	30대이하	34	3.71	2.21	39	4.67	2.53	-1.717
	40대이상	85	3.38	2.29	71	4.25	2.46	-2.301 *
공격 행동	30대이하	34	2.29	1.92	39	2.77	2.45	-.912
	40대이상	85	1.95	1.99	71	2.37	2.05	-1.275
퇴행 행동	30대이하	34	2.85	2.02	37	3.19	2.05	-.695
	40대이상	85	2.71	1.98	70	3.26	1.98	-1.723
강박 행동	30대이하	34	4.00	2.27	38	4.79	2.70	-1.333
	40대이상	85	4.19	2.09	70	4.61	2.35	-1.193

(\* : p<.05)

<표IV-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차이는 40대 이상의 경우만이 과잉행동(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그 차이는 일치 집단( $\bar{X}=3.38$ )보다 불일치 집단( $\bar{X}=4.25$ )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하면 40대 이상의 어머니를 둔 아동들은 과잉행동을 나타낸다.

<표IV-13>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IV-13>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의 차이

구 분		일치			불일치			t
		N	$\bar{X}$	SD	N	$\bar{X}$	SD	
위축행동	30대 이하	42	2.12	2.54	30	2.70	2.58	-0.951
	40대 이상	82	1.80	1.61	79	2.53	2.35	-2.285 *
과잉행동	30대 이하	42	3.83	2.57	30	4.13	2.57	-0.489
	40대 이상	84	3.57	2.36	79	4.08	2.44	-1.342
공격행동	30대 이하	42	2.26	2.31	30	2.50	2.11	-0.447
	40대 이상	84	2.07	1.93	79	2.63	2.23	-1.723
퇴행행동	30대 이하	42	2.83	2.11	29	2.96	2.28	-0.252
	40대 이상	84	2.88	1.92	79	3.09	1.89	-0.695
강박행동	30대 이하	42	3.98	2.47	29	4.21	2.98	-0.355
	40대 이상	84	4.25	2.32	79	4.89	2.18	-1.803

(\* :  $p < .05$ )

<표IV-13>에서 제시된 것처럼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차이는 40대 이상의 경우만이 위축행동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그 차이는 불일치 집단( $\bar{X}=2.53$ )이

일치 집단( $\bar{X}=1.80$ )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40대 이상의 어머니를 가진 아동들은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할 때 위축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IV-14>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IV-1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의 차이

구 분		일치			불일치			t
		N	$\bar{X}$	SD	N	$\bar{X}$	SD	
위축행동	30대 이하	36	1.83	2.17	35	2.49	2.34	-1.217
	40대 이상	73	1.90	2.03	83	2.45	2.29	-1.552
과잉행동	30대 이하	36	3.36	2.04	35	4.57	2.29	-2.350 *
	40대 이상	75	3.67	2.10	83	4.09	2.44	-1.181
공격행동	30대 이하	36	1.78	1.77	35	2.74	2.21	-2.029 *
	40대 이상	75	2.24	1.91	83	2.48	2.07	-.761
퇴행행동	30대 이하	36	2.64	2.15	35	3.14	1.99	-1.024
	40대 이상	75	2.89	1.67	82	3.01	2.17	-.387
강박행동	30대 이하	36	3.72	2.13	35	4.57	2.90	-1.401
	40대 이상	74	4.24	2.19	83	4.49	2.29	-.698

(\* :  $p < .05$ )

<표IV-14>에서 제시된 것처럼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차이는 30대 이하의 경우 과잉행동( $p < .05$ )과 공격행동( $p < .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은 과잉행동에서 불일치 집단( $\bar{X}=4.57$ )이 일치 집단( $\bar{X}=3.36$ )보다 높게 나타났고, 공격행

동에서도 불일치 집단( $\bar{X}=2.74$ )이 일치 집단( $\bar{X}=1.7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30대 어머니를 가진 아동들은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할 때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을 보이게 된다.

### 3. 가설 3의 검증

가설 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차이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설 3의 의도였으며, 이를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15>과 같다.

<표IV-15>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차이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

구 분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
수용-거부	.160 **	.175 **	.102	.152 **	.125 *
자율-통제	.149 *	.111	.131 *	.045	.130 *
비과잉-과잉	.104	.170 **	.108	.086	.084

(\* : p<.05, \*\* : p<.01)

<표IV-15>를 보면 수용-거부적인 태도는 위축행동(r=.160), 과잉행동(r=.178), 퇴행행동(r=.152), 강박행동(r=.125)과는 1%의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으나 상관정도가 극히 낮고, 공격행동과는 유의적인 상관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율-통제의 경우는 위축행동( $r=.149$ ), 공격행동( $r=.131$ ), 강박행동( $r=.130$ )과는 5%의 유의수준에서 상관을 보이거나 상관정도가 극히 낮고, 과잉행동, 퇴행행동과는 유의적인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과잉-비과잉의 경우 과잉행동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뿐( $r=.170$ ,  $p<.01$ ) 위축, 공격, 퇴행, 강박행동과는 유의적인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차이가 크다고 해서 아동의 부적응 행동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 V. 요약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요약 ·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지각한 양육태도간에는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양육태도 지각의 일치도에 따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에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에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양육태도 지각의 일치도에 따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양육태도 지각의 일치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양육태도 지각의 일치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시에 소재한 N초등학교의 5학년 5학급, 6학년 4학급 남·여 학생 33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표집하여 조사하였으나 319부만이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로는 양육태도를 검사하기 위해 김기정(1984)이 제작한 양육태도 질문지로 하위영역을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의 3영역으로 하였고,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검사는 정서적 부적응 행동 변인을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을 설정한 박영미(1995)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및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일치도별 집단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적률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는 수용-거부적 태도에서 아동( $\bar{X}=29.91$ )이 어머니( $\bar{X}=29.26$ )보다 높게 나타났고( $p<.05$ ), 자율-통제적 태도에서도 아동( $\bar{X}=21.36$ )이 어머니( $\bar{X}=20.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p<.01$ ). 그리고 비과잉-과잉적 태도에서도 아동( $\bar{X}=24.25$ )이

어머니( $\bar{X}=21.86$ )보다 높게 나타났다( $p<.01$ ).

둘째,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는 여아의 경우 수용-거부적 태도(아동:  $\bar{X}=30.30$  어머니:  $\bar{X}=29.11$ )와 비과잉-과잉적 태도(아동:  $\bar{X}=23.33$  어머니:  $\bar{X}=21.06$ )에서 아동의 지각 점수가 어머니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p<.01$ ). 그러나 남아의 경우는 자율-통제적 태도(아동:  $\bar{X}=21.94$  어머니:  $\bar{X}=20.73$ )와 비과잉-과잉적 태도(아동:  $\bar{X}=25.01$  어머니:  $\bar{X}=22.52$ )에서 아동의 지각 점수가 어머니보다 높았다( $p<.01$ ).

셋째,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는 30대 이하의 경우 자율-통제적 태도(아동:  $\bar{X}=21.48$  어머니:  $\bar{X}=20.48$   $p<.05$ )와 비과잉-과잉적 태도(아동:  $\bar{X}=23.62$  어머니:  $\bar{X}=21.70$   $p<.01$ )에서 아동의 지각 점수가 어머니보다 통계적으로 높았다. 또한 40대 이상의 경우도 자율-통제적 태도(아동:  $\bar{X}=21.31$  어머니:  $\bar{X}=20.49$   $p<.05$ )와 비과잉-과잉적 태도(아동:  $\bar{X}=24.54$  어머니:  $\bar{X}=21.93$   $p<.01$ )에서 아동의 지각 점수가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과잉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p<.01$ ), 불일치 집단( $\bar{X}=4.40$ )이 일치 집단( $\bar{X}=3.47$ )보다 점수가 높았다. 자율-통제적 태도는 위축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p<.05$ ), 불일치 집단( $\bar{X}=2.58$ )이 일치 집단( $\bar{X}=1.91$ )보다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비과잉-과잉적 태도의 경우는 위축행동( $p<.05$ )과 과잉행동(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위축행동(불일치 집단:  $\bar{X}=2.46$  일치 집단:  $\bar{X}=1.88$ )과 과잉행동(불일치 집단:  $\bar{X}=4.24$  일치 집단:  $\bar{X}=3.57$ ) 모두 불일치 집단의 점수가 높았다.

다섯째, 수용-거부적 태도에서 남아의 경우 위축행동과 과잉행동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은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위축행동(불일치 집단:  $\bar{X}=2.79$  일치 집단:  $\bar{X}=1.65$ ), 과잉행동(불일치 집단:  $\bar{X}=4.86$  일치 집단:  $\bar{X}=3.38$ ), 공격행동(불일치 집단:  $\bar{X}=2.68$  일치 집단:  $\bar{X}=1.70$ ), 퇴행행동(불일치 집단:  $\bar{X}=3.14$  일치 집단:  $\bar{X}=2.39$ ), 강박행동(불일치 집단:  $\bar{X}=4.67$  일치 집단:  $\bar{X}=3.62$ ) 전 영역에서 불일치 집단의 점수가 일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율-통제적 태도에서는 여아의 경우 위축행동과 강박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즉, 위축행동(불일치 집단:  $\bar{X}=2.98$  일치 집단:  $\bar{X}=1.73$ )과 강박행동(불일치 집단:  $\bar{X}=5.21$  일치 집단:  $\bar{X}=3.95$ )에서 불일치 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과잉-과잉적 태도에서 여아인 경우 p<.05수준에서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위축행동(불일치 집단:  $\bar{X}=2.93$  일치 집단:  $\bar{X}=1.87$ ), 과잉행동(불일치 집단:  $\bar{X}=4.23$  일치 집단:  $\bar{X}=3.18$ ), 공격행동(불일치 집단:  $\bar{X}=2.84$  일치 집단:  $\bar{X}=2.02$ )에서 불일치 집단의 점수가 일치 집단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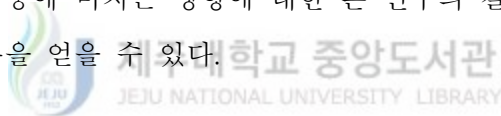
여섯째, 수용-거부적 태도에서 40대 이상의 경우만이 과잉행동에서 불일치 집단( $\bar{X}=4.25$ )의 점수가 일치 집단( $\bar{X}=3.38$ )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자율-통제적 태도에서는 40대 이상의 경우 위축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5), 불일치 집단( $\bar{X}=2.53$ )이 일치 집단( $\bar{X}=1.80$ )보다 점수가 높았다. 비과잉-과잉적 태도에서는 30대 이하의 경우 p<.05수준에서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과잉행동(불일치 집단:  $\bar{X}=4.57$  일치 집단:  $\bar{X}=3.36$ )과 공격행동(불일치 집단:  $\bar{X}=2.74$  일치 집단:  $\bar{X}=1.78$ )에서 불일치 집단의 점수가 일치 집단보다 높았다.

일곱째,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차이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는 수용-거부적인 태도는 위축행동( $r=.160$ ), 과잉행동( $r=.178$ ), 퇴행행동( $r=.152$ ), 강박행동( $r=.125$ )과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으나 상관정도가 극히 낮다. 자율-통제의 경우는 위축행동( $r=.149$ ), 공격행동( $r=.131$ ), 강박행동( $r=.130$ )과는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상관을 보이거나 상관정도가 극히 낮으며, 비과잉-과잉의 경우는 과잉행동과 극히 낮은 상관관계를 보일 뿐( $r=.170, p<.01$ )이다.

## 2. 결 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간에는 차이가 있다. 즉, 수용-거부적 태도와 자율-통제적 태도에서 아동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수용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한다. 반면 비과잉-과잉적 태도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것보다 아동이 과잉기대, 즉 성취압력을 더 받고 있다.

이것을 아동의 성별로 보면, 여아는 수용-거부적 태도에서 어머니보다 더 수용적으로 지각하고, 남아인 경우는 자율-통제적 태도에서 어머니보다 더 자율적으로 지각한다. 비과잉-과잉적 태도의 경우는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잉기대를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어머니의 연령별로 보면 어머니의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자율성의 허용범위를 더 넓게 지각하고,

과잉기대를 더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둘째,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할 때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지각이 불일치할 때는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지각이 불일치할 때 위축행동과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아동의 성별로 보면,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할 때 남아는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 모든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받으며, 여아인 경우는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할 때 여아의 위축행동과 강박행동에 영향을 준다. 또,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하면 여아의 경우에만 위축행동과 과잉행동, 공격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것을 어머니의 연령별로 보면, 수용-거부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할 때 40대 이상의 어머니를 가진 아동들이 과잉행동에 영향을 받고, 자율-통제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할 때는 40대 이상의 어머니를 가진 아동들이 위축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비과잉-과잉적 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불일치할 때 30대 이하의 어머니를 가진 아동들이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서 영향을 받는다.

셋째,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는 그 상관관계가 극히 낮아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는 상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의 차이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첫째,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자녀와의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돕는 부모교육의 강화 둘째,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투입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 3. 제 언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과의 지각차이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만을 조사하였는데 아버지와 아동과의 지각차이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지각의 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변인과 아동의 변인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셋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수정 및 학습 부적응아를 위한 실험연구가 많아지고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포함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1982). 아동의 위축행동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 외 공역(1986). 「과잉행동아 지도」, 대구대학교재출판사.
- 김영숙(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관(1981).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차이가 성격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자(1980). 정서부적응아 판별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제은(1989). 벽지 초등학교 아동의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호(1978). “아동의 부적응에 관한 일 연구”, 「진주교대 논문집」, 제5집.
- 남상인(198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희옥(1987). 정서 부적응 학생의 자기개념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정(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미(1995).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부적응 행동과

- 의 상관,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금주(1994). 초등학교 아동에서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경순(199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성숙도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리성(1993). 정서 부적응아의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기선(1968), 부모용 부모 자녀 관계 진단 검사지, 코리안 테스트 센터
- 오성심 ·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행동과학」, 연구노우트, 11(1).
- 오승연(1993). 초등학교 아동의 충동성과 부적응 행동 및 가정환경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희(1979).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인지와 그 자녀의 적응,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봉(1967). 「생활지도론」, 서울 : 범문사.
- 윤희상(197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영(1992). 가족체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 은(1981). 정서부적응 아동의 특성과 그 환경적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선화(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1980). 부모간 양육태도 일치도와 아동의 성격특성과의 상관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매자(1999).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교(198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자(1998). 어머니의 양육된 태도 및 자녀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원식(1969). 「인간과 교육」, 서울 : 배영사.
- 정원식 외(1984). 「생활지도」, 한국통신대학.
- 정태조(1994).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황순(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가 자녀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1978). The child behavior profiles : Boys aged 6 through 11.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Vol 46. 478-488.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 Bower, E. (1969). Early identification of emotionally handicapped Children in school 2nd ed., Springfield : Charles C. Thomas.
- Dunn, L. M.(1969). Exceptional children in the schools.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Fishbein, M. & Aizen, I. B. (1975).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 Addison-Wesley.
- Hallahan, D. P. & Kauffman, J. M. (1978). *Exceptional children :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Englewood Cliffs, N.Y.: Prentice - Hall, Inc.
- Hurlock, E. B. (1978). *Child Development :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 on family relations*(6th ed.), Graw-Hill.
- Jersild, A. T. (1966). Child Psychology, N. Y. : Prentice Hall.
- Kirt, S. A. (1972). *Educating exceptional children*, 2n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Medinnus, G. R. (1966). *Age and Sex Differences : Canscience Develop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 Mussen, P. H., Conger, J. J. and Kagan, J.(196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3rd ed.), N. Y. : Harper and Row Publisher.
- \_\_\_\_\_ et al.(197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4rd ed.).
- Quay, H. C. (1972). *Patterns of aggression, vithdrawl, and Immaturity*. N. Y. : John Wiley & Sons, Inc.
- Reinert, H. L. (1976). Children in conflict. St. Lois : Mosby Co.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 Co.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 Salter, P. E. (1956). Parental behavior and the personality of child.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53-58.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 Y. : Bureau of Publi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Walter, J. & Stinnett. N. (1971). Parent-child relationship, N. Y. : A decade review of rese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Abstract>

### **The Effect of Difference between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s Perception on Children's Emotional Maladaptive Behavior**

Kim Shin Ja

Major in Counsel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o Myung Ky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difference between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s perception of it on children's emotional maladaptive behavior.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30 fifth graders and sixth graders and their mothers from N elementary school in the city of Jeju. A survey was implemented with questionnaires. And the sincere response from 319 students and their mothers were selected for final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PC program.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 perception of it. Children perceived more receptive and autonomous than mothers' thought in receptive-refusal attitude and autonomous-control attitude. But, on the other hand, children were put under excessive expectation that is, achievement stress more than mothers' thought in non excessive-excessive attitude.

By gender, girls perceive more receptive than mothers' thought in receptive-refusal attitude and boys perceive more autonomous than mothers' thought in autonomous-control attitude.

By mothers' age, children perceived more autonomous and mothers' excessive expectation than mothers' parenting attitude regardless of mothers' age.

Second, when ther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others' perception and

their children's in receptive-refusal attitude, it had an effect on excessive behavior. And when ther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 in autonomous-control attitude, it had an effect on withering behavior. And when ther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 in non excessive-excessive attitude, it had an influence on withering behavior and excessive behavior.

By gender, when there's a difference between them in receptive-refusal attitude, it had an effect on boys' all maladaptive behavior such as withering behavior, excessive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and obsessive behavior and it had no effect on girls. And when there's a difference between them in autonomous-control attitude, it had an effect on girls' withering behavior and obsessive behavior. And when there's a difference between them in non excessive-excessive attitude, it had an influence on only girls' withering behavior, excessive behavior, and aggressive behavior.

By mothers' age, when there's a difference between them in receptive-refusal attitude, it had an effect on excessive behavior of children who had mothers over 40 years old. When there's a difference between them in autonomous-control attitude, it had an influence on withering behavior of children who had mothers over 40 years old. And when there's a difference between them in non excessive-excessive behavior, it had an effect on excessive behavior and aggressive behavior of children who had mothers under 30 years 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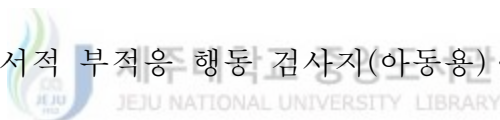
Third, the discord of perception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on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s maladaptive behavior had no interrelation, which means that there's no interrelation between the discord of perception of them and children's emotional maladaptive behavior.

As a result,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perception on parenting attitude had an effect on children's emotional maladaptive behavior. The above mentioned findings suggest some actions should be taken in relation to the way of reducing the discord of perception of them on parenting attitude,

First, it is necessary to teach mothers how to understand growth of their children and how to communicate with them.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rograms which children and their parents could enjoy together and to implement them.

# 부 록

<부록 1> 양육태도 검사지(어머니용).....	54
<부록 2> 양육태도 검사지(아동용).....	57
<부록 3> 정서적 부적응 행동 검사지(아동용).....	60



<부록 1>

설 문 지  
<어머니용>

이 설문지는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훌륭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 주는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자녀에게 대하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00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신 자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연령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2. 학력 : 중졸( ). 고졸( ). 대졸( )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면 4번, 자주 그렇다면 3번, 가끔 그렇다면 2번, 전혀 아니다면 1번에 0표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나의 자녀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있다.	4	3	2	1
2. 나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자녀가 함부로 만지면 야단을 친다.	4	3	2	1
3. 나는 나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란다.	4	3	2	1
4. 나는 나의 자녀와 마음이 잘 통한다.	4	3	2	1
5. 나는 자녀가 친구들과 잠깐만 만나도 야단치며 공부만 하라고 한다.	4	3	2	1
6. 나는 나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4	3	2	1
7. 나는 나의 자녀가 잘한 일이 있어도 칭찬해 주는 일이 없다.	4	3	2	1
8. 나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크게 야단을 친다.	4	3	2	1
9. 나는 자녀의 학교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자녀에게 심한 꾸중이나 벌을 준다.	4	3	2	1
10. 나는 나의 자녀와 이야기 할 때, 언제나 자녀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11. 나는 자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4	3	2	1
12. 나는 자녀가 학교에서 “수”를 받아야만 만족해한다.	4	3	2	1
13. 나는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나 근심이 있어 보이면 그 까닭을 알고 싶어한다.	4	3	2	1
14. 나는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거의 허락해 주는 편이다.	4	3	2	1
15. 나는 자녀에게 다음에는 꼭 누구 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는 말을 자주 한다.	4	3	2	1
16. 나는 자녀가 이야기 하면 자녀의 속마음이나 느낌까지 알아차린다.	4	3	2	1
17. 우리 집에서는 나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4	3	2	1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면 4번, 자주 그렇다면 3번, 가끔 그렇다면 2번, 전혀 아니다면 1번에 0표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
18. 나는 자녀에게 오직 공부만을 강요한다.	4	3	2	1
19. 나는 자녀가 무엇을 물어 보면 귀찮아도 대답을 잘 해 준다.	4	3	2	1
20. 나는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다.	4	3	2	1
21. 내가 자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자녀의 학교 성적이다.	4	3	2	1
22. 나는 자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하는 말을 골잘 한다.	4	3	2	1
23. 자녀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한다.	4	3	2	1
24. 나는 자녀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음방 화난 얼굴을 한다.	4	3	2	1
25. 나는 자녀와 이야기 하면 자녀의 말 뜻을 얼른 이해하지 못한다.	4	3	2	1
26. 나는 어떤 일이든지 자녀에게 강제로 시키는 법이 없다.	4	3	2	1
27. 나는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4	3	2	1
28. 나는 자녀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4	3	2	1
29. 우리 집에서 자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4	3	2	1
30. 나는 자녀에게 “너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다.	4	3	2	1
31. 나는 자녀가 심부름을 잘 못 했을 때에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곤 한다.	4	3	2	1
32. 나는 자녀에 관한 일도 내 마음대로 정하여 버린다.	4	3	2	1
33. 나는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기만을 바란다.	4	3	2	1

<부록 2>

설 문 지  
<어린이용>

이 설문지는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훌륭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해 주는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느낀 그대로를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00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신 자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성별 : 남 · 여

2. 학년 : 5학년( ) · 6학년( )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면 4번, 자주 그렇다면 3번, 가끔 그렇다면 2번, 전혀 아니다면 1번에 ○표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
1. 어머니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있다.	4	3	2	1
2.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내가 함부로 만지면 야단을 친다.	4	3	2	1
3. 어머니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란다.	4	3	2	1
4. 어머니는 나와 마음이 잘 통한다.	4	3	2	1
5. 어머니는 내가 친구들과 잠깐만 만나도 야단치며 공부만 하라고 한다.	4	3	2	1
6. 어머니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4	3	2	1
7. 어머니는 내가 잘한 일이 있어도 칭찬해 주는 일이 없다.	4	3	2	1
8. 어머니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크게 야단을 친다.	4	3	2	1
9. 어머니는 나의 학교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나에게 심한 꾸중이나 벌을 준다.	4	3	2	1
10. 어머니는 나와 이야기 할 때, 언제나 나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11. 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4	3	2	1
12. 어머니는 내가 학교에서 “수”를 받아야만 만족해한다.	4	3	2	1
13. 어머니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나 근심이 있어 보이면 그 까닭을 알고 싶어한다.	4	3	2	1
14. 어머니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거의 허락해 주는 편이다.	4	3	2	1
15. 어머니는 나에게 다음에는 꼭 누구 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는 말을 자주 한다.	4	3	2	1
16. 어머니는 내가 이야기하면 나의 속마음이나 느낌까지 알아차린다.	4	3	2	1
17.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의 말에 무조건 따르야 한다.	4	3	2	1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면 4번, 자주 그렇다면 3번, 가끔 그렇다면 2번, 전혀 아니다면 1번에 ○표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
18. 어머니는 나에게 오직 공부만을 강요한다.	4	3	2	1
19. 어머니는 내가 무엇을 물어 보면 귀찮아도 대답을 잘 해준다.	4	3	2	1
20. 어머니는 나의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다.	4	3	2	1
21. 어머니가 나에게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나의 학교 성적이다.	4	3	2	1
22. 어머니는 나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하는 말을 곧잘 한다.	4	3	2	1
23. 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한다.	4	3	2	1
24. 어머니는 내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금방 화난 얼굴을 한다.	4	3	2	1
25. 어머니는 나와 이야기하면 나의 말뜻을 얼른 이해하지 못한다.	4	3	2	1
26. 어머니는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강제로 시키는 법이 없다.	4	3	2	1
27. 어머니는 나의 공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4	3	2	1
28. 어머니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4	3	2	1
29. 우리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4	3	2	1
30. 어머니는 나에게 “너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다.	4	3	2	1
31. 어머니는 내가 심부름을 잘 못 했을 때에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곤 한다.	4	3	2	1
32. 어머니는 나에게 관한 일도 어머니 마음대로 정하여 버린다.	4	3	2	1
33. 어머니는 내가 좋은 학교를 가기만을 바란다.	4	3	2	1

<부록 3>

## 설 문 지

### <어린이용>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답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김 신 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성별 : 남 · 여

2. 학년 : 5학년( ) · 6학년( )

내 용	그렇다	아니다
1. 나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2. 나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혼날까봐 겁부터 난다.		
3. 나는 자신감이 없는 편이다.		
4. 나는 왠지 눈치가 보이고 쉽게 당황한다.		
5. 나는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이 싫다.		
6. 나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잘 당한다.		
7. 나는 동작이 느리고 활동적이지 못하다.		
8. 나는 수줍음을 잘 탄다.		
9.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마주 쳐다보지 못하겠다.		
10.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시키는 것이 싫다.		
11.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겠다.		
12. 나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부산한 편이다.		
13. 나는 신경질을 자주 내는 편이다.		
14. 나는 너무 말이 많은 편이다.		
15. 나는 무례한 행동을 잘 저지른다.		
16. 나는 조그만 일에도 우쭐해지고 뽐내는 편이다.		
17. 나는 내 뜻대로 안되면 때를 써서라도 꼭 하고 만다.		
18. 나는 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하고싶은 대로 한다.		
19. 나는 장난을 잘 치고 잡담을 좋아한다.		
20. 나는 거짓말을 잘 친다.		
21. 나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남과 다투는 일이 많다.		
22. 나는 사소한 일에도 시비를 걸고 남을 괴롭힌다.		
23. 나는 주위 사람들을 헐뜯고 위협할 때도 있다.		
24. 나는 친구들을 잘 때린다.		
25. 나는 화가 나면 내 물건들을 잘 집어던진다.		

내 용	그렇다	아니다
26. 나는 반항적이고 고집이 세다.		
27. 나는 싸움을 피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싸운다.		
28. 나는 선생님 말씀에 대들고 불복종할 때가 많다.		
29.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꾸중을 많이 듣는 편이다.		
30. 나는 나쁜 말과 욕을 자주 하는 편이다.		
31. 나는 일을 하면 끝까지 못할 때가 많다.		
32. 나는 내 자신이 어리고 몸도 약하다고 생각한다.		
33. 나는 조그만 일에도 눈물이 날 때가 많다.		
34. 나는 조그만 다쳐도 걱정을 많이 한다.		
35. 나는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자주 걸려 넘어진다.		
36.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머리나 배가 아플 때가 있다.		
37. 나는 어리광을 잘 부린다.		
38. 나는 참을성이 부족하다.		
39. 나는 말을 더듬는 편이다.		
40. 나는 나보다 어린아이들과 노는 것이 좋다.		
41. 나는 웬지 쫓기는 듯하고 초조할 때가 있다.		
42. 나는 자주 피로해 진다.		
43. 나는 경쟁심이 강하고 내가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다.		
44. 나는 불안하여 안절부절 할 때가 많다.		
45. 나는 늘 남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며 행동한다.		
46. 나는 무서움을 잘 탄다.		
47. 나는 조그만 일이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48. 나는 남에 대해 의심을 많이 한 편이다.		
49. 나는 어떤 일이 갑자기 닥치면 당황하고 어떻게 하여야 할 지를 모르겠다.		
50.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